금주의 법구–〈법구경〉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28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12월 29일) 2021년 2월 10일 수요일

한국 비구니 모든 것 총체적 연구로 DB화

전국비구니회 · 비구니승가硏 신년계획 발표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한국불교 승단을 지탱하는 하나의 축이지만 그동안 상대적으로 조명되지 못했던 한국 비구니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 · 조사사업이 본격화된다. 비구니 역사와 인물에 대한 조명은 물론, 디지털 비구니인물백과사전 등 비구니와 관련한 사진과 기사 기록 등 자료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구축 사업도 총체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 비구니에 대한 기초자료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연구 토대를 마련하고 그 가치와 의미를 보다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비구니 위상 제고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1월 29일 신년하례에 이어 소임자 워크숍을 진행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워크숍은 지난해 사업보고에 이어 집행부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거나 지속해 나갈 부서별 주력사업을 공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국비구니사' 편찬 등에 역점을
구술아카이브 · 인물 백과사전도
비구니역사 · 인물 DB구축 사업
"위상 제고 · 조명 핵심토대될 것"

올해 사업 계획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소장 수경)가 주도하는 비구니 연구조사 및 발간 사업이다. 비구니승가연구소는 올해 △한국비구니사 편찬 사업 △신문기사로 본 한국 근현대 비구니자료집 메타데이터 구축 △한국 비구니 구술 아카이브 구축 △전국비구니회의 역사 아카이브 구축 △한국 비구니와 여성 디지털 인물백과사전 발간 사업 등에 매진한다.

한국비구니사 편찬 사업은 지난해 첫발을 내딛은 사업으로, 삼국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비구니를 중심으로 그 역사성을 조명하는 대규모 작업이다. 이를 위해 소장 수경 스님과 국장 정문 스님, 전영숙 책임연구원, 조은수 서울대 철학과 교수 등은 지난해부터 스터디팀을 구성해 비구니 역사에 관한 조사에 나섰고, 현재 삼국시대부터 조선전기까지의 초고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는 비구니 역사성과 정통성을 확보하는 근거자료인 동시에 대중들이 비구니에 대한 이해를 돕는 토대가 될 전망이다. 올해에는 지난해 작성된 초고를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완작업에 나서는 한편, 조선 후기부터 20세기까지 비구니사 원고를 작성한다는 방침이다.

'신문기사로 본 한국근현대 비구니자료집' 의 메타데이터 구축작업은 신문기사에 등장한 비구니 관련 자료들을 일괄적으로 정리해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이다.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이 스크랩 형태로 진행해 온 자료가 토대가 됐다. 홈페이지도 함께 만들어 비구니에 관심 있는 이들이 간편하게 접속해 비구니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할 예정이며, 올 9월 경 관련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다.

대중들이 비구니 스님들의 삶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방안도 진행 중이다. '한국 비구니 구술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세납 70세 이상 법납 40년 이상의 비구니 스님을 대상으로 구술인터뷰를 통한 자료화 작업으로 주목된다. 과거에 이어 현시대를 살고 있는 비구니 스님들은 그 자체로 반세기 비구니사의 주역이자 출가수행자의 지표이기에, 그 삶을 조명함으로써 비구니로서의 삶에 담긴 가치와 의미를 드러낸다는 계획이다. 구술 녹화를 통한 영상과 텍스트 자료를 함께 구축해, 대중과 대중매체에 다양한 소스를 제공함으로써 비구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국 비구니와 여성' 디지털 인물백과사전은 그야말로 비구니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인물 기록이다. 삼국시대부터 현대까지 불교문화 및 대사회적으로 기여한 비구니스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비구니스님들의 역할과 활약이 새롭게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물백과사전은 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연계 예정이다.

수경 스님은 "승가연구소가 진행 중인 다양한 사업들은 그동안 분산돼 있거나 조사 · 연구가 부족해 조명되지 못했던 비구니 분야의 학문적 · 역사적 토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 출발점에 서있다"며 "비구니 역사와 인물, 관련 기록 등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조사를 통해 기초자료를 정비하고 체계화해 대중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추가적인 심층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스님은 "해당 사업들은 전국비구니회가 예산을 일부 지원하는 가운데, 사업 후원을 통해 진행되고 있어 속도가 다소 더디다"며 "그럼에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비구니회는 신년하례에서 올해 집행부 소임자 인사를 완료하고, 2월 8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새해 사업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회칙 제개정 및 승가공동체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등을 다뤘다. 이날 논의된 안건 등은 3월 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코로나 없는 무탈한 한해를"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가 2월 3일 입춘을 맞아 가정화합 발원문 소전의식을 진행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찰 지침으로 대웅전에 들어가지 못한 신도들은 외부 앞마당에서 기도를 올렸고, 새해를 시작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발원문을 작성했다. 주지 지현 스님과 대중 스님들은 신도들이 작성한 발원문은 모아 태우는 소전의식을 통해 저마다 발원의 원만성취와 코로나19가 없는 평안한 한해를 서원했다. 글=송지희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국보 반가사유상 전용 전시공간 만든다

국립중앙박물관, 신년간담회서

2층 기증관 입구에 공간 조성
"루브르 모나리자 전시실처럼
國博 대표 전시공간 만들 것"

한국을 대표하는 불교문화유산인 국보 제78호 · 제83호 금동미륵반가사유상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용 전시공간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새롭게 조성된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민병찬)은 2월 3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신년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1일 임명된 민병찬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앞으로의 박물관 운영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여서 눈길을 끌었다.

민 관장은 '사람을 다시보다, 세상을 연결하다, 내일을 준비하다' 라는 슬로건으로 △반가사유사상 전시공간 조성 △문화유산 과학센터 설립 △기증관 공간 개편 △어린이박물관 확대 개편 수립 등을 올해 중점 사업으로 제시했다.

민 관장은 가장 먼저 국보 제78 · 83호 반가사유상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용전시관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실제 반가사유상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장 사랑받는 문화재로 손꼽힌다. 매년 국내 관람객 만족도 조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품에 선정돼 오고 있고, 세계 주요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한국미술을 대표하는 문화재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국립중앙박물관에는 두 반가사유상을 함께 볼 수 있는 전시 공간은 없었다. 두 반가사유상을 국내에서 동시에 볼 수 있던 것은 2004년과 2015년 두 번뿐이었다.



민병찬 국립중앙박물관장이 2월 3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박재완 기자

국립중앙박물관은 반가사유상 전시실을 기존 3층 불교조각실에서 2층 기증관 입구로 이동하고 오는 10월까지 약 440㎡ 규모의 전용 공간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반가사유상을 '국립박물관 브랜드 문화재' 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민 관장은 "시공을 초월하여 감동과 영감을 주는 반가사유상의 보편적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전통과 현대적 요소가 가미된 전시공간을 만들겠다"면서 "루브르 박물관 모나리자 전시실을 보러 프랑스 파리를 가듯 국립중앙박물관의 두 반가사유상을 보기 위해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브랜드화 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최신 보존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문화유산 과학센터' 를 올해 중으로 착공한다. 박물관 북쪽에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9350㎡ 규모로 건립되는 '문화유산 과학센터' 는 광범위한 문화재 데이터를 조사 · 수집하고 빈발하는 문화재 진위 논란 등을 막기 위한 국가 공인 문화재 검증 센터가 될 전망이다.

민 관장은 "2024년 문화유산 과학센터가 완공되면 국립박물관 보존과학 역량이 더욱 성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은 올해부터 기증관을 점진적으로 개편해 기증자 예우를 위한 '기증자 전당' (2022년 완성)을 만들어 기증자의 삶과 이야기가 있는 다양한 전시 콘텐츠를 기획해 선보인다.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속박물관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2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속 박물관 브랜드 특성화 △지역 박물관 협력망 구축 △소장품 자료 아카이빙 △온라인 전시 등 디지털 콘텐츠 강화 등의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이 올해 계획 중인 특별전 일정도 발표했다. 특히 한국 불교회화, 조각 등을 주도했던 승려 장인, '승장(僧匠)' 들을 조명하는 특별전이 올해 12월 7일부터 내년 3월 6일까지 진행된다. 〈관련 기사 10면〉 신성민 기자

설 연휴 관계로 다음주 쉽니다

대광불교
대광불교는 연등 시공 전문기업입니다.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 naver.com | 010-9446-1862,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